

전주형 스마트시티 만들기 돌입

시,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첨단ICT기술 활용 해결방안 제시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부정책 대응·LX 디지털트윈 플랫폼 활용 전략도

전주시가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전주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용역 수행기관인 한컴라이프케어 관계자, 용역 자문을 맡은 최귀남 델 테크놀로지 아시아 스마트시티 전무 등 사업 관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도입해 전주만의 특화된 도시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주시 스마트시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는 지능정보기술, 통신, 데이터과학 등 다양한 ICT기술의 융합을 통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기술과 서비스 등으로, 이를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자인 한컴라이프케어의 용역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최귀남 델 테크놀로지 아시아 스마트시티 전무가 용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진행했다. 또, 용역 관련부서인 스마트시티과와 생태도시계획과 공간정보담당,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사업단 등 실무자들이 전주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에 앞

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지역 현안들을 ICT기술과 서비스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도시 모델을 도출하는 등 사람 중심의 전주만의 특화된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담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분석·공유·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한 국가공모과제를 발굴하고, 국토정보공사(이하 'LX')와

추진할 협력과제 등을 도출함으로써 국비를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3D 버추얼 전주'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시민이 만드는 전주, 사람중심의 전주 스마트시티' 비전과 발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전주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 도시의 지속적 성장요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변화에 따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도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은 지난 16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예수병원,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지난 16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본관 7층에 위치한 71병동에 1인실 2실, 2인실 2실, 6인실 5실, 전체 30병상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한다.

새롭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 71병동은 '간호사 18명, 간호조무사 6명, 병동지원인력 4명' 등 총 28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환자모니터링시스템, 전통침대, 에어메트리스, 이동용 좌변기, 목욕의자, 낙상감지센서, 이동용 서비스스테이션, 면담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이용에 동의한 외과, 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환경으로, 입원 치료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서 환자와 보호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철승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1병동은 보호자가 간병해야 하는

사고와 간병비용 부담을 줄여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이다"며, "입원 환자 치료에 집중하여, 환자 제일주의를 실천하고 환자경험중심의 간호병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므로 병상을 더욱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에 의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의료기관이 진행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도 불린다.

또한, 이 서비스는 간호 인력 확충과 시설을 확보 등으로 병실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간호인력이 '24시간 전문 간호간병서비스'를 진행해 입원환자를 돌보는 제도이다.

더불어,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인력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 간호,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기본 간호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은 간병비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통시장에 활기 UP'...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수제맥주 시음 행사 진행 시장 상인들이 개발·선정 안주 등 먹거리도 다채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수제맥주와 함께한 '2019 전주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전주 모래내길 일원에서 수만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막을 내렸다.

전주모래내시장치맥&가맥페스티벌은 전통시장을 알리고 활성화 하기 위한 전통을 잇는 지역축제로 전 국민이 좋아하는 치킨과 수제맥주를 테마로 기획되어 2016년 처음 시작,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도내 수제맥주 양조장 4개 업체, 동문거리 양조장, 장수 583 양조장 등이 참여해 모래내시장에서 개발한 수제맥주 브랜드 3종의 시음 행사도 진행됐으며 치킨 외에 시장 상인들이 개발·선정한 안주 등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였다.

축제에서는 방송인 MC 김현수와 가수 한유빈의 진행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축제는 지난 금요일 저녁 모래내시장 특설무대에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토요일 자정까지 이어졌으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무대가 연출됐다.



시원한 수제맥주와 함께한 '2019 전주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전주 모래내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첫날 영스타가요열전에서는 걸그룹 아이러브를 비롯해 가수 홍시, 조수진, 강유진이 출연해 성대하게 개막 축하쇼를 펼쳤다.

이어, 궁따리사비리의 '클론의 구준엽 DJ Koo'가 진행하는 신나는 EDM파티로 축제의 절정을 치달았고, 전주지역 전문소밴드 원더풀월드가 강력한 록음악으로 축제의 열기를 내뿜으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둘째날 토요일에는 국내 최정상 가수 박현빈의 힐링콘서트'가 이어

져 가수 김종석, 진정아, 이진, 조승우, 도연 등이 함께 출연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밝혔다.

특히, 박현빈의 힐링콘서트에 앞서 펼쳐진 '미스&미스트롯 스타킹'에서는 축제에 앞서 예선을 통과한 가수를 꿈꾸는 전국에서 참가한 아마추어 가수들이 우승상금 백만원을 놓고 격돌함으로써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완열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예산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래내 시장을 방문해 맥주와 치킨을 즐겼다"며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돼 전주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전주모래내시장상인회가 주최한 행사로 전주시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송효철 기자

서학동 예술마을 정체성 담은 슬로건 공개 모집

전주시가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서학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슬로건을 공개 모집한다.

전주시와 서학동예술마을 현장지원센터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019 서학동예술마을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마을의 이미지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과 가치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예술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전에는 서학동예술마을에 관심이 있는 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학동예술마을의 이미지를 담은 20자 이내의 표어(띄어쓰기 포함)와 500자 이내의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상 1명(은누리상품권 20만원)과 최우수상 2명(은누리상품권 15만원), 우수상 3명(은누리상품권 10만원) 장려상 10명(은누리상품권 5만원) 등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옥마을에 방송국이 생겼어요

시, 개국식 행사 개최 매주 금·일요일 방송

국가대표 여행자인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원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전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하는 방송국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통성당 맞은편 전주시 현장시장 한옥마을지원과 1층에 마련된 '전주한옥마을 방송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옥마을 주민, 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국 개국 행사를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통성당 맞은편 전주시 현장시장 한옥마을지원과 1층에 마련된 '전주한옥마을 방송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옥마을 주민, 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국 개국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옥마을 방송국 현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 또, 개국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조준모 전주교통방송 mc가 여행객과 소통하는 한옥마을 방송을 진행, 여름휴가와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의 오가는 발길을 사로잡았다.

방송 말미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깜짝 게스트로 참여, 방송국 개국 축하인사와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옥마을 방송국은 향후 한옥마을 기반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관광안내와 홍보 방송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송 기획·제작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방송으로 주민과 여행객 간 소통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현장방송의 경우 방송국 현장에서 임시로 여행객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아 진행돼 감성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청,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진행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쿨존과 통학버스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존 교통소통 안전관리에서 사람 배려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안전 환경 구축, 인력조정 등 정성(精誠)치안 고품질활동을 전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16~2018년, 3년 평균) 중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추세에 연평균 394건이 발생하며 63.9%가 차량 승차 중 발생한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연평균 18.3건 중 86%가 보행 중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간은 오전보다 오후가 높았으며, 오후 16~18시 사이에 23.5%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사고는 연평균 3건 발생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정성(精誠)치안을 펼친 결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대폭(11건, 68.8%) 감소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개학철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내용 상반기(1~7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지점(5개소)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원인,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진단과 어린이보호구역(1,017개소) 내 신호

등 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등굣길(8~9시) 아침시간 교통소통 관리 근무인원을 주 혼잡도로에 최우선으로 최소한 배치, 남은 인력을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근무로 전환 배치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구축한다.

어린이 보행 안전에 주 위협행위인, 불법주정차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무 위반 등을 캠퍼더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앱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어린이 주 이동수단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안전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용식 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의 따뜻한 배려와 여유 있는 운전습관에서 시작되어 내 아이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안타까운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도민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시민경찰 도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최근 시민경찰 도 연합회와 민, 경간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했다.

조용식 청장은 전북치안의 동반자로서 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받아 진행돼 감성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효철 기자

의지를 밝혔다.

조용식 청장은 "한정된 인력과 여건을 고려할 때 경찰의 힘만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완성할 수 없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치안 거버넌스 차원의 민, 경 협력방안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찰력 한계를 보완해야 하며, 시민경찰 여러분이 전북치안의 안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